

□ 회기 거리에서 사라진 것들을 회상하며

정감 넘치던 그 때 그 거리...

특색있는 거리형성위해 노력해야

이 창 훈

(지리학과 86학번)

나는 86학번이다. 내가 학교다닐 때도 같은 주제의 글을 대학주보에서 본 기억이 난다. '70년대 학교 주변 분위기'는 선술집과 하숙집만 가득했다. 지금 보니 학교 주변이 공부하는 대학거리 답지 않게 너무 화려해져 보인다.'라는 투의 글이었던 것 같다. 예나 지금이나 학교 주변 문화에 대한 관심은 높다는 단상이 든다.

86년도에도 회기동 거리가 지금처럼 화려하지는 않았다. 우선 노래방, 비디오방, 통신게 임방 뭐 이런 신종 오락업소들은 눈엣가시 찾아 봐야 찾을 수도 없었거니와 빠끼, 야타족과 같은 업종은 저기 신촌이나 압구정동에나 있는 것으로 알았다 또 머리방, 화장품, 옷가게도 많이 들어섰다.

회기동 거리는

상점의 종류도

많아지고 화려해졌지만

상점 주인들의

인심도 많이 변했다

내가 대학을 다닐 때 음식값이나 술값을 다 른 상점에 비해 터무니 없이 비싸게 매기는 가게에 대하여 불매 운동을 편적이 있다. 총 학에서 암암리에 가격표들을 조사해서 대자 보판에 대상상점들을 붙여놓는 것이다. 그 당 시에는 그것이 꽤나 효과가 있어서 화가난 업주는 총학에 찾아와 성토를 하기도 했지만 명 단에 오른 대부분의 상점들은 다음날로 가격 표를 바꿔 붙여야 했다.(지금이야 상점별로 차별화 전략을 통한 손님끌어들이기가 빈번 하니 그럴 수가 없었지만) 회기동 거리의 변 화는 상점의 종류도 많아지고 화려해졌지만 상점주인들의 인심도 많이 변화 했다.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

대모가 많았던 80년대 후반에는 학교 앞 상점들은 생업에 지장이 많았다. 누구보다도 길 거리에서 떡볶이며 순대를 팔던 간이 음식점 들은 큰일 났다. 최류단 가루들이 날리는 거 리에서 장사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다 코를 막고 지나가니 먹는 사람도 없거니와 파는 사람도 고역이다.

그래서 정문앞에서 오맹을 팔던 할머니는 아예 나오질 않았고 조금 길을 내려가면(지금 의 25시가 있는 곳) 리어카를 두고 오맹과 떡볶이 등을 팔던 아주머니가 있었다. 데모도 총지만 내장사는 어떻하라고 ... 하며 눈에는 램을 붙이고 코에는 휴지로 막고 한탄을 하였 다. 그 모습에 얼마나 죄스럽게 느껴지던지 그날 주머니에 있는 돈을 모두 털어 떡볶이와 오맹을 사먹었다. 그렇게하여 나는 졸업할 때 까지 오맹과 떡볶이는 그집에서 자주 사먹게 되었다. 그후 졸업을 하고 학교 주변에 김밥집들이 체인점을 두고 생겨날 무렵이다. 길을 가다가 예전에 그 아주머니가 리어카가 아닌 가게를 열고 떡볶이와 순대 등 예전에는 팔던 그 음식들을 그대로 팔고 있었다. 나는 너무 반가운 마음에 문을 열고 들어가 아는 척을 하려는데 이미 그 아주머니는 나를 잊으신 것 같았다. 그리고 그 당시 이것 저것 마구 챙겨 주는 아주머니가 이제는 정량제를 도입했는 지 더 이상 부침은 없었고 가격도 많이 오르고 그러다 보니 맛도 예전 같지가 않았다. 외 상술 주던 술집도 이제는 신용이 엄청 있어야 가능하고 학생중이며 주민등록중이며 시계며 등등 가득하던 바구니는 이제 없어졌다. 외상 사절이라는 글 대신 가맹점 카드사 마크가 붙 어있고 카운터에는 카드결제기가 놓여져 있 다.

이러한 거리의 변화는 다 돈 때문이다. 문 화라는 것은 돈이 드는 일이라서 사치성 업소 가 들어서고 선술집보다 화려한 무늬를 자랑 하는 맥주집이 많이 들어서는 것은 회기동 경 제가 그만큼 발전하는 일이다. 그래서 동대문 구에서는 회기동 거리를 문화거리로 조성해 서 더욱 경제성이 높은 지역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즉 70년대 선술집과 자취집이 많았 던 것은 지역경제가 선술집을 할 수밖에 없었 고 기숙사가 부족하고 고학생들이 많아 싸구 려 자취방이 많았다는 것이다. 86년도에도 빠끼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여기에 와 봤자 돈이 안되니까 오지 않았던 것이다.

경제발전이라는 미명하에 사라지는 옛 문 화전통, 파괴되는 자연환경이 있듯이 지역경 제 발전이라는 이유로 인해 사라지는 것들도 있다. 그중에 하나가 '서점'이다. 예전에는 '지평'이라는 서점이 있었다. 지평은 사회과 학 전문서점이었다.

고집스럽게 사회과학서적만 팔다가 경찰에 수색도 당하고 책도 빼앗기고 했지만 대학가 에서만 존재 할 수 있는 서점이었다. 그때는 전공서적이외에도 대학인은 사회과학을 읽어야 한다는 분위기가 있어 어려운 가운데서도 대학거리문화의 핵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다보니 약속장소로 많이 활용되

기도 하였다. 사회과학서적외에도 헌책방이 몇 군데 있었다. 헌책방은 책을 싸게 구할 수 있다는 것 외에도 가난한 자취생들에게는 간간이 용돈을 제공받는 전달포와 같은 역할 도 했으며 선배들이 남겨놓은 표식과 쪽지(흔 히 말하는 족보)들을 발견하는 사례도 있어 황재(?)를 하곤 했다.

또 하나는 자취방 문화이다. 당시 전라도 순천에 올라온 고학생이었던 내 동기가 한 눈 있었는데 그놈은 밥보다 술을 좋아하고 공부 는 뒷전이고 선·후배, 동기의 이야기를 통해 공부하는 그런 녀석이였다. 그는 밤새도록 술을 마시고 아침은 빈병을 팔아 라면을 사먹 고 속을 푸는 배짱있는 동기였다. 몇 평 안되 는 작은 방이었지만 그 방은 매일 만원이었 다. 시험때면 도서관에 자리를 잡기 위해 기 거하는 놈, 술먹고 집에 못 들어가 기거 하는 놈, 시골에서 올라온 자취방비를 탕진하고(주로 술값으로 날렸지만 간혹 가난한 친구의 등 록금을 대주는 일도 있었다) 얌전히 사는 놈 등 그 자취방은 우리들의 주요회담 장소였다.

“학교 앞이 유흥가처럼 변해

우리 대학인들과

상관없는 거리가

되어 가고 있다”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마지막으로 대학의 거리문화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덧붙이고 줄일까한다.

졸업하고 얼마 지난후 재학중인 한 후배로 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 “학교앞이 유흥 가처럼 변해 우리 대학인들과는 상관없는 거 리가 되어가고 있다”라는 한숨쉬인 이야기였 다. 변화하는 모습을 검토해보는 것도 좋지만 더 나은 거리로 만들려는 실천이 뒤따라야 한 다는 생각이 든다.

적어도 건전하지 못한 상가들에 대해서 불 매운동·추방운동을 벌여 나가야 하지 않을 까? 그런 노력이 있어야 색깔있는 대학주변 의 거리가 형성되리라고 본다. 원고를 마칠 즈음, 내가 대학다니기 전부터 ‘낙서와 노래’ 할 수 있는 술집으로 유명한 일번지의 허목아 저씨가 돌아가셨다고 한다. 몇 안남은 추억들 이 과거로 하나들 사라지는 것 같아 더욱 아 슬게 느껴진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학교를 중심으로 길가에 늘어난 상점들. 변화하는 거리의 풍경도 좋지만 학생들의 소비를 부추기는 모습들은 사라져야 할 것이다. 건전한 대학거리 형성을 위해 학교와 학생 그리고 지역간에 끊임없는 연대구축이 되어야 한다

□ 우리가 지켜내지 못한 지평

날카롭게 사회 바라보던 눈은 어디로



▲학생들의 무관심속에 지난 95년 문을 닫아버린 사회과학서점 '지평'

얼마전 '건대 앞 한 사회과학서점 침몰' 또는 '사회과학서점 주인연행' 등의 이야기가 화두에 오른 적이 있었다. 하지만 우리학교 근처에는 왜 사회과학서점이 없는가에 대한 의문을 던져본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다. 우리학교에도 95년도까지는 '지평'이라는 사회과학서점이 있었다. 누적되는 적자와 학생들의 외면으로 '지평'은 할 수 없이 문을 닫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지평'은 80년대 중반 국문과 출신인 임명옥 동문이 문을 열었고, 이후 같은 과 이정원 동문이 인수. 95년도에 문을 닫을 때까지 짧다면 짧은 역사를 갖고 있다. 이러한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지평'은 학생들에게 '아낌없이 주는 나무' 역할을 해왔다. 80년대 90년대초 민주화열기가 뜨거웠을 당시 학생들에게 사회를 보는 안목과 새로운 각도의 사상, 철학 그리고 역사·의식을 제공해 주었다.

대학생이라면 당연히 읽어야만 했던 사회과학서적들이 점점 등한시 되는 이유가 단지 사회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없을 만큼 좋아졌기 때문일까. 아니면 대학생들이 할 일이 많아져 그런 것까지 고민을 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것일까.

타 학교의 사회과학서점의 경우 나름대로의 자구책을 펴고 있다. 고대앞 '장백서원'의 경우 재학생과 졸업생 10여명이 모여 서점이전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조합원 모집활동을 벌이고 있다. 또한 연대의 경우 '오늘의 책'이 인사관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문닫을 위기에 처했다가 1백만원짜리 계좌모집을 벌여 인근 건물로 이사하는 등의 사회과학서점 살리기 전략이다. 95년 당시 '지평'의 경우도 서점이 존폐위기에 놓이자 국문과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등의 노력을 했으나 역부족이었다. 그 당시 학생들이 더 큰 힘을 모아 '지평'을 지켜내지 못했나 하는 아쉬움만이 남을 뿐이다.

최근 고등학생들에게 우리학교는 놀기 좋은 곳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한다. 이렇게 나간다면 앞으로 경희대를 '놀이 마시는 대학'이라고 떠올리는 이가 없다는 것을 누가 장담할 수 있을 것인가. 바람직한 학풍을 위해서라도, '지평'의 자리가 유흥업소로 바뀌어 가는 것을 더 이상 수수방관하지 말아야 한다.

(최현일 기자)

□ 회기거리분석과 미래전망

젊음과 패기 그리고

공감대 형성할 수 있는 공간 필요해

‘김군은 수업이 끝나후 친구들과 교문을 나서 주변을 두리번 거린다. 여기서 김군의 하루는 시작된다. 오늘은 어디를 갈까? 호프집에 가서 술이나 한잔할까. 아니면 당구장에 갈까. 아참! 당구장은 아가도 갔었지. 이런 저런 생각 끝에 술먹고, 노래방에 가기로 결정한다. 이러저러한 곳에서 재미있게 시간을 보낸 후 열한시에 있는 비디오방으로 발걸음을 옮긴다. 영화 한편을 본 후 친구들과 헤어져 집으로 돌아온다.’

이렇듯 학교 앞 여가공간은 정해져 있다. 호프집, 당구장, 비디오방 그리고 락카페 등... 물론 할일 없고 심심할 때 보내기에는 적당한 장소이다. 우리는 김군처럼 늘 상업적인 장소에 갇혀 지내고 있다. 시선을 움직일때 마다 보이는 것은 상흔에 젖은 가게들 뿐이다. 정문부터 이어지는 도로변에 준비해 있는 상업장소들과 이리저리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을. 높은 곳에서 회기동 거리를 유심히 살펴보면 학교앞이라고 말하기 무색하게 너무 상업적인 장소뿐이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다.

무엇이 학교 앞 거리를 이렇게 만들었는가.

그동안의 학교 앞 주변은 학생들의 의식과 발걸음을 같이 해왔다. 시대속에서 학생들에게 인기있는 것이라면 학교 앞은 그런 상업공간으로 자리잡아 왔다. 만화가 유행할때는 만화방이 노래부르는 것이 유행하면 노래방이 영화를 좋아하면 비디오방으로 해를 거듭할 수록 변화해 온 것이 지금 우리학교 앞의 현주소이다.

이런 변화속에서 회기동 거리는 점차 여느대학거리와 마찬가지로 제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학생들에게 필요한 서점,



▲특색있는 거리로 자리잡을 예정인 '마이웨이'

문구점은 점차 자취를 감추고 그자리를 술집이나 당구장이 메꾸고 있는 실정이다. 학생들의 메마른 정서를 충족시켜 줄 공간들이 학생들에 의해 사라져 가고 있는 것이다. 단순히 먹고 즐기는 데에만 익숙해져 있다. 실제로 토요일 밤을 보면 거리의 수많은 학생들이 삼삼오오 모여 학교 앞 거리를 누비고 다닌다. 고래고래 소리치고 길 한가운데 나타나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회기동 거리, 학생들은 이곳이 변화해야 한다고 외치고 있지만 정작 말뿐 실천적인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다. 다들 무엇이 필요하고 존재해야 하는지 문제의식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안타깝지만 했던 회기동 거리에 최근 변화의 움직임이 보이고 있어 우리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95년 동대문 구청은 홍릉에서 경희대학교까지 '문화의 거리'로 지정한 것을 비롯, 회기동 주민들의 특색 있는 거리를 만들자는 의견아래 최근 '마이웨이'를 개동한 것이다. 흥대의 '파카

소 거리', 서울대의 '먹자골목', 강남의 '로데오 거리'처럼 개성이 넘치는 거리로 만들자는 계획이다. 단지 상업적인 공간이 널려져있는 거리가 아닌 학생들의 젊음과 패기를 방출할 수 있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곳으로 발전시키자는 것이다. 여기에 호응하듯 얼마전 학교 앞에 인터넷 카페가 생겼다. 기존의 음료수를 마시는 공간에서 탈피 다양한 정보를 열어주는 인터넷 사용으로 나름대로의 특색을 부여하고 있다.

학교 앞의 변화가 여기서 그쳐서는 안 된다. 그동안 무심했던 회기동 거리에 활기를 불어넣어야 한다. 지금처럼 아무런 자각없이 지낸다면 우리들의 일상은 늘 똑같은 뿐이다. 문화의 거리로 탈바꿈하려는 이런 움직임 속에 좀 더 구체적인 사안의 마련과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할 때이다. 또한 지역과 학교간의 폭 넓은 연대구축도 모색해 봐야 한다.

(김동혁기자)